

# 기억의 재창조로서의 문학

##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鴉の死)」

이 경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졸업

제주도 출신의 <재일 조선인 작가> 김석범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제주 4·3사건을 테마로 삼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4·3사건의 상처를 피해 일본으로 간 친척, 유방이 도려진 여인 등 타자(他者)의 전문(傳聞)을 문학 작품으로 재구축해 왔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직접 체험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기억이 어떻게 작가의 안에서 재구축하여 작품으로 형상화되는지 작가의 초기작인 「까마귀의 죽음」을 통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까마귀의 죽음」 근원에 존재하는 것은 '기억'이다. 확실당한 사람들의 기억,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의 기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억은 기억해서는 안 되는, 망각을 강요당한 기억들이다. 김석범은 이렇게 단절되는 기억과 역사를 문학으로 담았다. 이 기억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억이다.

# 기억의 재창조로서의 문학

##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鴉の死)」

1. 서론
2. 기억의 문학적 재현
3. 등장인물에 반영된 기억
4. 「까마귀의 죽음」에 나타난 역사와 기억
5. 결론

### 1. 서론

김석범(金石範 1925년 10월 2일~ )은 1957년 8월 「문예수도(文藝首都)」에 「간수 박서방(看守朴書房)」을 발표하며 일본 문학계에 등단한 제주도 출신의 재일작가<sup>1)</sup>이다. 데뷔 이후 제주4·3 사건을 비롯한 제주의 역사를 소설의 주요 테마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까마귀의 죽음(鴉の死)」(「文藝首都」1957.12)은 물론, 1976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문학계(文學界)」에 연재된 대장편 『화산도(火山島)』(1984년 오사라기지로상(大佛次郎賞) 수상, 1998년 마이니치 예술상(毎日芸術賞) 수상)

---

1) <재일조선인 작가> 혹은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명칭의 문제부터 김석범이 재일 1세대인가 2세대인가 하는 등 그와 <재일조선인 문학>을 둘러싼 의견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한 논자의 견해는 석사논문인 이경아, 「「까마귀의 죽음(鴉の死)」론-역사와 기억, 그리고 문학-」, 제주대학교 2011년 석사학위 논문'에 이미 밝힌 바가 있으며, 본고에서 이런 이견(異見)들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또한 동일한 테마를 다루고 있다.

본고는 김석범이 제주4·3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건에 주목해 계속해서 문학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석범의 소설에는 과연 어떤 역사적 사실과 타자의 기억이 있으며 어떻게 작품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것에 대해 본고는 「까마귀의 죽음」이란 작품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타자의 기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집필 당시 작가의 조국관과 4·3관, 타자의 기억이 가진 의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김석범이 「까마귀의 죽음」을 쓰던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국관과 4·3관이 향후 작품에서 일관된 형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절대적 조국의 관념이던 제주도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까마귀의 죽음」은 김석범의 처녀작으로 이제 막 작품 활동을 하던 김석범의 조국관과 4·3관이 그대로 투영된 작품이며, 작가의 조국관과 4·3관의 원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우선 2장에서 일본 현대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인 아사마 산장 사건과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을 일본 문학계에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짚어 본다. 이어 3장에서는 「까마귀의 죽음」의 등장인물에 나타난 타자의 기억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2장의 두 작품과 「까마귀의 죽음」이 각각의 사건을 기억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기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겠다.

## 2. 기억의 문학적 재현

김석범은 전해 들었던 체험의 기억과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을 문학으로 형상화했다. 이 기억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의 정합 혹은 부정합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문학텍스트로 형상화된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속에 의미를 계속해 추구하고 미래와도 이어지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사건 자체의 성격은 제주4·3사건과 다르지만,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사건의 체험자가 된 타자의 기억으로 작가에게 전달되어 문학으로 남겨진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 「까마귀의 죽음」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중 논자는 일본의 전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1970년대의 아사마 산장 사건과 1990년대의 도쿄지하철 사린 테러에 주목하고 각 사건을 소재로 한 다테마쓰 와헤이(立松和平)의 『빛의 비(光の雨)』(新潮社, 1998.7)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언더그라운드(アンダーグラウンド)』(講談社, 1997.3)<sup>2)</sup>를 살펴보고, 이 두 작품과 「까마귀의 죽음」이 전문(傳聞)을 통해 간접 체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문학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 형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70년대 초기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으로 아사마 산장 사건이 있다. 게다가 아사마 산장 사건의 주역인 연합적군 멤버들이 1971년부터 1972년에 걸쳐서 일으킨 동지에 대한 린치 살인사건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며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들은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이를 테마로 한 문학작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신조사(新潮社)에서 1998년에 발행되고 영화로도 제작된 다테마쓰 와헤이(立松和平)의 『빛의 비(光の雨)』를 살펴본다.

『빛의 비』는 원래 집영사(集英社)의 「스바루(すばる)」에서 연재되었지만 당사자인 사카구치 히로시(坂口弘)가 쓴 수기 『아사마

2) 한국에서는 1998년 11월 열림원에서 출판된 바 있다. 2010년 12월 문학동네에서는 『언더그라운드 2 : 약속된 장소에서』와 함께 완역 출판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것을 인용하였다.

산장 1972상·하(あさま山莊1972上・下)』(彩流社, 1993.4) 등과 너무 흡사하여 모작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아 작가는 이를 인정하고 사죄, 연재는 중지되었다. 하지만 동세대의 입장에서 연합적군 사건 직후에 쓰인 추상적이고 이야기 형식의 소설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연합적군 사건을 정면에서 다루고 싶다는 작가의 의지가 관철되어 몇 년간 시행착오 끝에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사건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30년, 80세가 된 다카라이 기요시(宝井潔)라는 연합적군의 멤버가 주인공이며, 다카라이는 실제 연합적군의 멤버인 사카구치 히로시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다카라이가 아파트의 옆집에 사는 2030년을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연합적군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카라이는 사건의 체험자인 자신이 병들고 노쇠하였기에 자신이 사망하면 그 사건의 진실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에 이웃 젊은이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하고자 한다. 죽은 동지들을 생각하면 자살이 허락되지 않고, 자신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다카라이의 고백들은 사카구치의 수기나 법정 진술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참고한 것이 대부분이다. 체험자의 기억이 큰 가공 없이 거의 그대로 문학 안에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 스스로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로운 기억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다카라이 기요시의 숙명이다. 다카라이 기요시가 죽으면 20세 정도의 나이로 죽어간 젊은 친구들이 살았던 기억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sup>3)</sup>

3) 立松和平, 『(光の雨)』, 新潮社, 1998, 18쪽.

다카라이에게 있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꼭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건의 기억이며 그 기억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역시 사건의 체험자들은 기억하기 괴롭겠지만 이 세상에 그 기억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1995년 도쿄의 지하철에서 켈트 신흥종교단체인 음진리교는 화학병기를 사용한 무차별 테러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일본 문학계는 침묵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인터뷰하여 『언더그라운드』를 발간한다. 사린 테러가 일어났던 각 열차번호와 역별로 분류해 체험자가 자신의 체험과 기억을 이야기하는 르포 형식의 구조이다.

무라카미가 이 사건을 취재할 때 모든 이들이 협력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에이단(營団) 지하철 직원의 한 사람은 다들 잊고 싶어 하니 취재는 그만두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끈질기게 그 사건에 다가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건을 잊어버린다면 그걸로 끝일까? 확실히 ‘이제 그만 사건을 잊고 싶은’ 직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중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간단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 사건을 이대로 풍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입을 열 수 없는 죽은 이들도……. 4)

입 밖에 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사건을 취재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 취재를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무라

4) 무라카미 하루키, 『언더그라운드』, 문학동네, 2010, 724쪽.

카미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러나 『언더그라운드』에서 역시 『빛의 비』처럼 사건의 “사건을 풍화시키거나 동료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작가인 무라카미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두 개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사건의 체험자가 작품 속에서 화자(話者)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빛의 비』의 경우는 다카라이의 죽은 여성 동지, 때로는 자신들이 강탈한 총 혹은 여성 지도자, 부인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한다. 물론 이야기를 전개하는 화자는 각각 다르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회상(回想)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언더그라운드』 역시 지하철 사린사건을 직접 겪은 체험자들이 자신의 체험을 직접 이야기한다. 즉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각 작품은 사건 전개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1인칭으로 같은 시점을 보인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들의 기억이 세상에 남겨져야 한다는 명확한 의식을 하고 있다. 비록 단순한 체험담이나 자기 고백, 변명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괴롭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만 기억해 내고 말해서 그 기억이 미래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 공통점은 모두 종결된 혹은 종결이 되어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두 작품 모두 피의자로 볼 수 있는 연합적군의 멤버와 움진리교 신도들의 재판 기록과 법정 진술을 참고로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빛의 비』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그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2030년의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두 작품 모두 기억을 더듬어 회상하며 말한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 두 작품과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세 개의 작품 모두 같다. 그렇다면 이 세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3. 등장인물에 반영된 기억

「까마귀의 죽음」에는 주인공인 미군정청 통역 정기준을 비롯하여 종기 할아범(でんぼう爺い), 이상근, 장용석·양순 남매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등장인물들을 통해 작가의 시대관이 나 조국관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내보이는 시대관과 조국관의 밑바탕에는 기억이 존재한다.

작품의 도입 부분의 “꿈꿨던 얼어붙은 신작로”와 “트럭과 무수한 군화에 짓밟힌 무참한 모습의 도로”, “거친 바다”와 “묵직하게 드리워진 구름” 등의 표현만으로도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도입부의 어두운 분위기는 작품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이런 가운데 “에에야, 호우이, 에에야, 호우이-”하는 “불길한 ‘알림’소리”를 내며 가장 먼저 종기 할아범이 등장한다. 종기 할아범은 김석범 문학에서 탄생한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인물로 「까마귀의 죽음」뿐만 아니라 『화산도』와 「관덕정(觀德亭)」에도 등장한다. 또한 「간수 박서방(看守朴書房)」의 박백선, 「만덕 유령기담(萬德幽靈奇譚)」의 만덕, 「똥과 자유와(糞と自由と)」의 용백 등도 종기 할아범류의 인물로 이들은 하나같이 출신, 고향, 부모도 모른 채 제주에 흘러들어와 최하층의 삶을 영위하는 이른바 ‘바보형’ 인물들이다.

종기 할아범 또한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는 종기를 치료하는 일을 하는 등 하층의 삶을 영위하였다. 그 후 전사한 신원불명의 빨치산이나 포로가 된 후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은 빨치산의 배후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목을 대바구니에

5) 이재봉(이재봉, 「바보의 신화화 - 김석범 소설의 바보형 인물,, 『한국문학논총』 제34집, 2001)과 박미선(「김석범 문학의 4·3 대응 방법 연구 - 단편 소설의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Vol.5, 2002) 등은 종기할아범 외에도 김석범의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종기할아범의 유사인물들을 “바보형 인물”이라 칭하고 연구하고 있다.



놓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을 한다. 관청의 하수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종기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에서 권력에 기생하는 비열한 모습이 연상된다.

당연하게도 일반 민중들은 종기 할아범=관청으로 보고 있기에 종기 할아범에게 적대감을 내보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중들의 눈에는 “밀고의 욕망” 또한 담겨 있다. 그런 면에서 종기 할아범은 민중의 비열함, 욕망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다.

자신에게 적대의 눈빛을 보내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절름발로 깡충깡충 춤을 춘다. 그를 적대하던 군중은 종기 할아범의 이러한 모습에 폭소를 터트리기도 한다. 군중의 적대와 폭소 등의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적대감만 쌓여가는 각박한 현실에서도 민중의 소박한 웃음을 자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평소에는 두려움의 대상인 “알림의 어구”가 이때만큼은 군중의 폭소와 종기 할아범의 황홀감에 일조하므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런 현상이야말로 당시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는 한 장면일 것이다.

유숙자는 김석범 소설에 등장하는 종기 할아범류의 인간에서 강력한 민중상을 발견하고, 김석범이 가능한 한 조선적인 색채를 담아내고자 이러한 유형의 인물을 창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sup>6)</sup> 종기 할아범을 통해 작가는 작품 안에 조선의 것 즉 고향, 고국에 대한 기억과 계승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는 것이다. 논자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며 아울러 고향을 잃고 타지를 전전하는 종기 할아범의 모습에서 고국을 잃고 타향살이를 하며 삶을 위해 어떤 일이건 해야 했고, 핍박받고 무시 받았던 재일 조선인의 모습 또한 겹쳐 보인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하하하”라는 호탕한 웃음을 짓는 이상근이다. 이상근은 이른바 권세가의 아들로 종기 할아범이 신원

6) 유숙자, 『재일한국인문학연구』, 월인, 2000.10, 59-68쪽.

을 묻기 위해 들고 다니는 젊은 빨치산의 목을 보고는 자신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며 등장한다.

이상근은 “서울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제주도로 돌아와 “방탕에 가까운 나날”을 보내며 “좌충우돌하는 생활”로 아버지를 괴롭힌다. 여기에는 무언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까마귀의 죽음」에 나타나는 색채와 그 이미지는 눈(雪)의 흰색과 까마귀의 검정과 새빨간 피의 붉은색이 강조되는 원색의 세계이다. 어두운 날씨로 대표되는 회색은 피의 붉은색을 더욱 강조한다. 그런 세계에서 이상근의 영혼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상근이 허무로 이어지고 방탕에 가까운 나날을 보내게 된 이유인 것이다.

이상근은 본인 스스로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자신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한다. 죽은 빨치산의 목을 들고 다니며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라고 말하는 경찰을 비웃기도 한다. 정기준의 가면을 알아차린 유일한 인물이고 정기준에게 매우 호감을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이상근이지만 본 작품 안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고, 그의 역할은 『화산도』의 이방근으로 이어진다.

논자는 「까마귀의 죽음」에서의 이상근은 비극적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4·3사건에 대해 전해 들었던 시점의 작가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작가는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직접 체험할 수도 없었고, 타인의 기억을 통해 외부에서 사건의 실상을 전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상근과 이유는 다르나 실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선택도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동일하다.

다음으로는 정기준의 죽마고우인 장용석과 기준과는 연인관계인 장용석의 여동생 장양순이 있다. 장용석은 “불평할 줄 모르는 강인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정기준에게 스파이

의 제의를 한 것도 그랬다. 확고한 민족의식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스스로 빨치산 투쟁을 위해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다. 장양순은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정기준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정도로 고집스러운 면을 갖고 있다.

장용석과 양순 남매는 참된 통일조국을 열고자 직접 행동했던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순박하고 대담하고 용기와 의지가 있었다. 때로는 '당과 조국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젊은이들을 기억하고자 만들어낸 인물들이 장용석과 양순 남매라고 보인다. 더욱이 장용석의 이름은 작가가 해방 후 서울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물에 대한 추억에서 가져온 것으로, 장용석은 민족과 사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정기준이 작품 속의 장용석을 존경하고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 김석범 역시 장용석을 자신의 원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그런 실존 인물 장용석에 대한 작가의 기억이 이 작품 속 장용석에 녹아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기준은 주인공인 동시에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인물이기도 하다. 정기준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미군정청의 통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빨치산 간부 장용석과는 막역한 친구사이로 그에게 미군정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항상 얼굴에 미군정청 통역이라는 가면을 쓰고 진짜 모습은 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광주로의 전임을 통고받고 해방감을 느끼는 자신을 비열하다고 생각한다.

정기준은 '웃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조차 드러낼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습성을 죽이는데 익숙해져 있다.

성내의 감박이는 등불이 미덥지 못하여 기준은 성내에서 아주

7) 정대성, 「작가 김석범의 인생역정, 작품세계, 사상과 행동-서론적인 소묘로서-」, 『한일민족문제연구』 Vol.9, 2005, 65쪽.

먼 곳에 이제 그곳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와버린 듯한 착각에 빠졌다.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었다. 군정청 내부에서의 긴장은 제쳐놓고라도 가령 지금 장용석 이외의 빨치산이라도 우연히 만난다면(요즘은 정세가 악화하여 빨치산이 이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일은 없었지만), 기준은 그 일의 성질상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었다. 즉 자기가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편이라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sup>8)</sup>

이는 장기준이 처해있는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임무에 임하는 비장함마저 느낄 수 있다.

3·1사건 이후로 온 섬이 미군당국과 정면으로 대립했을 때 기준 역시 통역을 그만두고 조직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을 따르지 못했고 대신 용석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극비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 극비 임무가 바로 스파이이며, 정기준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단절에 의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런 정기준의 현실은 작가 자신이 처해있는 <재일>이라는 상황과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조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 그리고 그런 ‘조국’ 역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분단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이 작가의 ‘고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과 당을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처지에 있던 작가의 ‘샌다이 체험’<sup>9)</sup>이 녹아 있다.

8) 金石範, 『鴉の死』, 『金石範作品集』, 平凡社, 2005, 54쪽.

9) 김석범이 『조선평론(朝鮮評論)』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북의 조직 관계로 일본 공산당을 탈당하고 샌다리로 떠난다(52년 2월). 그곳에서의 일도 3, 4개월로 그만 두게 되는데, 한동안 도쿄에 머물던 중 당시 샌다이 조직의 정병우(丁柄雨)라는 동지가 다이너마이트로 자살해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샌다이의 조직은 공화국에 직결된 조직이었으나 김석범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탈당한다. 하지만 조직으로부터 나와 갈 곳이 없었다. 이것은 정치생명이 끊긴다는 것으로 사상적으로 전향을 하거나 적에게 조직이나 자신을 판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절망감은 보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료의 자살 사건도 더해져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정병우 대신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

작품 안에서 제주도 출신의 서장이 계속 섬에 눌러앉아 섬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광경을 그 눈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기준 역시 최악의 사태가 오면 전임을 거부하기로 한다. 또한, 작품 말미에 정기준은 자신의 “고독을 밀어낸 충실감”을 느낀다. 이 충실감은 바로 ‘혁명의 의지’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혁명’은 ‘산다는 것을 긍정하기 위해 변혁하는 것으로서의 현실을 긍정하는 것’<sup>10)</sup>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에게 있어서 전임을 거부하고 섬에 남을 것을 결심하는 것과 “고독을 밀어낸” 혁명의 의지는 비록 살육이 난무하는 땅일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제주도에 살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지는 곧 작가가 <재일>을 산다는 의지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인공인 정기준은 작가 자신의 의지와 기억이 가장 많이 반영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4. 「까마귀의 죽음」에 나타난 역사와 기억

작품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4·3사건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로 시대나 정권에 따라 그 정의나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제2조)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

---

각하고 있었다. 이런 고독한 경험이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한 「까마귀의 죽음」으로 연결된다(김석범/김시중, 이경원·오정은 역,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121-123쪽 참조).

10) 김석범/김시중(이경원·오정은 역), 위의 책, 173쪽.

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3사건의 진상규명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실태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sup>11)</sup>라고 4·3사건의 정의와 진상규명의 범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말미에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sup>12)</sup>라고 밝히며 끝을 맺고 있다. 이처럼 4·3사건은 그 사건이 발발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까마귀의 죽음』은 사건발생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195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2장에서 언급한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기억을 전해 듣고 형상화했다. 또한, 사건과 거의 동시대에 쓰인 작품이다. 그렇지만 『빛의 비』와 『언더그라운드』가 회상하는 형식의 서술인 것에 반해, 『까마귀의 죽음』은 작품 속 사건이 실제의 4·3사건과 같은 시간으로 흐른다. 이는 위의 두 작가가 각 각의 사건 자체가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체험자와 체험자들의 증언을 어떻게 남겨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김석범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그 안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점이다.

따라서 김석범이 4·3사건의 사건 그 자체를 서술하는 데에는 역사적 사실, 체험자들의 증언, 작가의 해석 등이 고루 섞여 있

1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43-44쪽.

12) 위의 책, 538-539쪽.

다. 이를 작품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해 보겠다.

우선 주인공 정기준의 직업이 미군정청의 통역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오류이다. 제주의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사건은 미군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작품의 시대배경이 되는 1949년은 이미 미군정에서 벗어난 후이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는 이에 대해 『김석범 『화산도』 읽기』에서 “작품의 시간 배경은 1949년 3월로 설정된 듯한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미군정청에서 일하는 정기준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은 아무리 픽션이라 하더라도 분명 실수라고 생각한다.”<sup>13)</sup>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비록 주인공의 직업 설정이 역사적으로 오류라고 하여도 결국 사건의 배경에 미국과 미국을 위시한 이승만 정권이 있었음을 작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류가 아닌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이며, 작가가 갖은 4·3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 4·3사건의 시발점 3·1발포사건을 시작으로 4·3사건의 배경에 미국이 존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sup>14)</sup>이

13)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삼인, 2001, 43쪽.

14) 미국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비록 4·3이 미군정 하에서 발생했어도 대규모 학살(1948.10이후)이 자행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이후의 일이므로 학살 책임은 없다고 발뺌하기도 한다. 게다가 1999년 12월 21일에 주한 미국대사 보스워스(S.W. Bosworth)는 “미국정부가 제주도로부터 철수하고 있던 과도기적 시점. 그리고 철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미국은 제주4·3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의 책임은 명백하다. 첫째로 4·3의 발단이 된 3·1발포사건, 고문치사사건, 4·3봉기 등이 모두 미군정 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딘 장군의 제주방문(1948.4.29)과 오라리 방화사건(1948.5.1)을 계기로 평화무드가 깨지고 강경도벌로 선회한 것, 합리적 해결을 주장한 김익렬 9연대장을 해임하고 강경파 박진경으로 대체한 점 등은 모두 미군정의 책임을 말해 주고 있다. 셋째로 중산간을 초토화시키고 대학살을 가저온 ‘해안선 5Km 이상을 적지로 간주하라’는 작전은 미군장교가 애초에 권유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서청이 경찰과 경비대에

다. 또한, 작가의 4·3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이승만을 앞잡이로 한 미국의 지배와 한국의 분단을 초래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일어난 전체 한반도 인민 투쟁의 일환<sup>15)</sup>”으로 작가에게 있어 4·3사건은 미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작품 안에서 4·3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존재했음을 작가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니 사실 저는 사형집행 직전에 빨갱이 놈들에게 네놈들은 미군정치의 덕분에 총살이라는 과분한 사형을 당하는 거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그게…… 글썄 미군 이야기는 입 밖에 낼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sup>16)</sup>

미군 정책과 조선 인민과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지고, 그것은 또한 도민과 제주 미군정치가 대립하는 형태로 눈앞에 확연히 나타났던 것이다. 미군은 항상 배후에 숨고, 그 대변자들을, 예를 들면 경찰권력이나 우익정당의 돌격대인 ‘서북청년회’나 ‘대동청년단’ 또는 ‘한라단(漢拏團)<sup>17)</sup>과 같은 지방테러단체

---

지원하게 된 것은 미군장교의 추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무엇보다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미군은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결정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민학살은 이 때 집중된 것인데 미군의 허용·묵인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학자 브루스 커밍스 박사는 “미군철수 때까지 제주섬에서 발생한 모든 학살극에 대해 미군은 실제적·법률적 책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영권, 『역사기행 16 제주4·3을 묻습니다』(신서원, 2007.5) 140-141쪽.

- 15) 「濟州島の4・3事件は一言で言って、李承晩を手先にしたアメリカの支配と、朝鮮を分断するための南朝鮮だけの單獨政府樹立に反対して立ち上がった全朝鮮人民のたたかいの一貫である。」(金石範, 「誰かが書く」, 『民族・ことば・文學』, 創樹社, 1976, 171쪽).
- 16) 「鴉の死」, 『金石範作品集』, 68쪽.
- 17) 한라단은 본래민족반역행위를 한 친일파들을 응징하여 우리 스스로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결성되어, 1945년 10월에 고향에 귀환하려 해도 귀환선편을 구하지 못한 제주 출신 노무자들이 시모노세키 항에 몰려



를 앞에 내세웠다. 이리하여 대다수 청년들이 그러했듯이 장용석은 조직에 들어가고 누이동생 양순도 그 뒤를 따랐다.<sup>18)</sup>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성모 국방장관, 로버츠 준장 같은 사건과 연관성을 갖는 정치인과 군인의 이름이 가공없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다테마쓰의 『빛의 비』의 경우 주인공인 다카라이나 그 밖에 연합적군의 멤버들이 실재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김석범은 이렇게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가만의 리얼리티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3사건의 배후에는 미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4·3사건은 당시 국제적 정서에 맞물려 복잡한 상황에 벌어진 일이며 4·3사건의 발발 원인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주인공 정기준이 경찰서 구내 잔디밭에 심어진 벚나무를 보면서 조국을 잃은 어두운 나날을 생각하고 감상에 젖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연장

---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얻어 선박을 대절하고 205명의 노무자들을 고향인 제주로 실어 나르는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라단의 단원들이 맨 먼저 한 일은 친일행위를 한 관리나 세도가들을 찾아다니며 응징하는 일이었다. 한라단이 친일파들을 응징하자 친일세도가들과 관리들이 줄을 대면서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사실 치안단체라는 성격 때문에 당시 제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산하 치안대와 마찰도 겪었으며, 1945년 10월 초순 한라단 단원들이 건준 사무실을 습격하여 집단적인 충돌이 있었고, 11월 5일 치안대가 한라단 단원들을 습격하여 7~8명의 부상자를 낳기도 했다. 이날 미군은 제주도에 진주한 이후 처음으로 야간통행금지를 발효했고, 치안대원 154명을 연행하여 군정재판에 회부했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gc/contents/contents.jsp?tid=602538> 참고). 미군에 의해 군정재판에 회부되고, 친일파 척결을 위해 일하던 단체가 그들을 위해 일했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이 또한 작가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한다.

18) 『鴉の死』, 『金石範作品集』, 71쪽.

선상에서 4·3사건을 바라본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작품에 나타난 지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제주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관덕정이나 삼성혈, 남문, 사라봉 등의 고유명사가 등장한다. 하지만 정기준과 장용석이 만난 계곡인 U악(岳)이나 마을의 이름들은 T리, S리, D리 등의 머리글자로만 등장을 한다.

김석범은 14세가 되던 해인 1939년 처음 제주를 방문했고 짧은 기간 동안 조국 생활을 체험했다. 그리고 18세가 되던 해의 두 번째 방문에서는 한라산의 관음사에서 한글과 천자문을 배웠고, 이때 함께 공부하던 동지들과 조선의 독립을 논했다고 한다<sup>19)</sup>. 제주도의 지리 등은 이때 습득한 것이다.

김석범이 제주의 4·3사건을 테마로 작품을 쓰게 된 계기인 사건의 체험자인 친척 아저씨나 유방이 도려진 여자의 이야기 이후 그는 일본에 건너온 제주도민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4·3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제주도의 지도를 그리고 마을을 표시해 가면서 조사했다고 한다<sup>20)</sup>. 그리고 입수되는 자료 또한 거의 없었다<sup>21)</sup>고 한다. 따라서 그의 제주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한정적인 지리적 지식이 이런 알파벳 지역명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주 4·3사건은 제주도의 어느 한 마을,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4·3사건은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인 30

19) 金石範,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2005, 604-606쪽.

20) “일본으로 피신 온 사람들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제주도 지역별 지도를 만들어 짐작해 가면서 체험자의 증언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김종민 기자의 인터뷰 기사. 『제민일보』1997년 10월 28일자. 나중에 『4·3과 역사』 제29호, 제주4·3연구소, 1997, 119쪽에 수록.

21) “이 사건은 한국에서는 터부시 여기고 있어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この事件は韓國ではタブーになっていて、ほとんど私たちの手に入る資料はないといってもいいでしょう.)”(김석범, 『民族·ことば·文學』, 創樹社, 1976, 158쪽).

여만 명 중에서 그 10분의 1인 약 2만5000천에서 3만여 명이 희생<sup>22)</sup>당한 사건으로 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작가는 어느 한 지역, 한 마을을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석범은 4·3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마을의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것이다. 마을마다 4·3사건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이야기를 어느 한 마을로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김석범은 4·3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비극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제3장에서 확인한 『언더그라운드』와는 확연히 다르다. 『언더그라운드』의 경우 작가인 무라카미는 사건을 체험한 개개인의 체험자들에게 그 시선이 닿아있다. 무라카미는 지하철사린 테러라는 거대한 하나의 사건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각 체험자 개인별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김석범은 4·3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기억 조각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제주도 전체의, 제주도민 전체의 아픔과 상처로 기억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체험자들의 기억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면 4·3사건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작가 김석범은 4·3사건을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 조국을 만들려고 노력한 민중항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어린애를 포함

22)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536-537쪽).

한 새로운 빨치산”이나 “초등학생도 빨갱이”라는 문장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아이나 초등학생이 좌익이나 우익,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같은 사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4·3사건의 희생자 중에는 어린아이, 임산부와 뱃속의 아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희생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아침저녁 관현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고 결국 “공권력에 의해 희생<sup>23)</sup>”을 당한 것이다.

4·3사건에는 여러 가지 배경과 배후가 있다. 4·3사건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당시의 시대상황과 국제정세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그리고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4·3문학이란 명칭이 아직 등장할 수 없었던 시기<sup>24)</sup>, 즉 김석범이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4·3사건을 다룬 작품들은 4·3사건을 단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보거나 4·3사건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김석범의 시각은 달랐다.

물론 김석범은 앞서 말한 한국의 정치현실이나 시대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이는 그가 암묵의 정치적 강권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와 마주한 것이 아니라 체험자 개개인의 생생한 기억과 마주하였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작가가 좌익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석범이 「까마귀의 죽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4·3사건은

23) 2003년 10월 31일 고 노무현전대통령은 4·3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24) 김동운은 「4·3의 진실과 문학②-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도서출판 각, 2006, 40쪽)에서 이 시기를 4·3사건의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년~1978년)로 보았다. 이때는 아직 냉전적 공식역사의 위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대항담론이 거의 표면화되지 못했던 시기였고, 제주가 아닌 외지인의 작품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 제주도민 중 특정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제주도민 전체의 상처라는 것, 우익과 좌익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실제 사건의 기억을 제3자가 표현할 때 1장에서 다룬 다테마쓰의 『빛의 비』와 무라카미의 『언더그라운드』와의 차이는 우선 사건을 기술하는 화자는 둘 다 1인칭인데에 반해 김석범은 3인칭으로 기술한 차이를 보인다. 「까마귀의 죽음」의 경우 화자는 주인공인 정기준으로 3인칭 주인공 화자이다. 작가는 청년시절 ‘센다이(仙台)체험’을 토대로 정기준을 만들어 냈고 따라서 정기준은 작가의 분신이 된다. 정기준은 4·3사건 자체의 객관적인 진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목격자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만큼 작가의 욕망이 개입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sup>25)</sup>.

두 번째 차이로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빛의 비』에서는 실존인물임을 연상시키는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실존인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반면 김석범은 등장인물 중 물론 가공인물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승모 국방장관 등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리얼리티를 더욱 부각한다. 이는 「까마귀의 죽음」에 나타난 지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S리, D면 같은 마을 이름을 사용하는 반면 관덕정, 삼성혈 같은 고유명사도 사용하면서 제주의 4·3사건이 제주의 특정 마을이 아닌 제주도 전 지역을 짓누른 상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언더그라운드』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하철 사린 테러라는 하나의 사건을 체험자 개개인의 체험과 기억으로 나누어 보려고 한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5) 노종상, 「4·3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와 심적거리(psychic distance)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 Vol.7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0. 11, 14, 16쪽 참조.

## 5. 결론

지금까지 2장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의 기억을 어떻게 문학으로 표현했는지 다테마쓰 와헤이의 『빛의 비』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두 가지 작품을 살펴보았다. 각 작품들은 표현 방식에서나 사건에 대한 서술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으나 체험자들의 기억이 그대로 현실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이어 나가기 위한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까마귀의 죽음』의 등장인물을 통해 4장에서는 『까마귀의 죽음』에 나타난 실제 사건과 허구 등을 확인하며 김석범이 제주 4·3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김석범은 작품 속에 실제의 사건과 인물, 자신이 창조해 낸 사건과 인물을 적절히 조합하여 서술하며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렸다. 김석범이 이렇듯 실제와 허구의 조합을 통해 『까마귀의 죽음』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조국과 고향이라는 관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주도와 그런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이 갖는 잔혹함과 잃어버린 기억이었다. 따라서 작품 안에는 사건의 체험자들의 기억과 작가의 기억 그리고 작가가 생각하는 조국과 고향의 이미지가 녹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석범에게 4·3사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 조국의 광복을 일본에서 맞이한 것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원죄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4·3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에게 있어 제주도는 해방되어 독립을 쟁취해야 할 조선의 대명사와 같은 것으로 단순히 지역적인 지방의 하나가 아니었다. 그에게 조국 조선은 제주도이다. 일본에 의해 잃어버린 조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등에 업은 정부에 의해 엄청난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 그 비극적인 사건의 기억은 다시 한국의

권력자들에 의해 말살 당해가고 역사에서 사라지려 했다.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제주·조국의 민중들은 내던져져 있었고 자신은 그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까마귀의 죽음』을 집필하던 무렵 김석범이 갖고 있던 조국관과 4·3관이었고, 그것이 작가 자신의 원죄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원죄에 대한 속죄의식과도 같은 것으로 4·3사건을 계속 이야기했다.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할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학살의 현장에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요시(小林孝吉)는 『기억과 문학: 「그라운드 제로」에서 미래로(記憶と文學: 「グラウンド・ゼロ」から未来へ)』(御茶の水書房, 2003.10)에서 20세기 일본사회가 가진 공백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후(戰後) 일본사회에 등장한 이 공백감의 원인은 기억과 윤리의 문제 등이다. 그런 가치의 공동화라고 하는 공백감을 넘어 미래와도 이어지는 것이 문학이며, 따라서 그런 문학 안에는 책임, 주체, 자유, 윤리 같은 문제들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자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억'은 과거나 역사의 주체나 사실이 아니라 개인, 집단, 국가, 민족, 토지 속에 존재하는 상처에서 재생으로 이어지는 실마리이다. 『까마귀의 죽음』 근원에도 역시 '기억'이 존재한다. 작가인 김석범 역시 체험자들의 기억들을 가지고 4·3사건을 겪은 개개인과 제주도민, 제주도 땅에 존재하는 상처를 보듬고 재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학살당한 사람들의 기억,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의 기억 등이 그것이다. 이 기억은 기억해서는 안 되는, 망각을 강요당했던 기억들이다. 김석범은 이렇게 단절되어 버리려는 기억과 역사를 담아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며, 그런 문학에 담긴 기억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석범은 『까마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sup>26)</sup>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기억’이 ‘상생’과 ‘미래’를 위한 기억이 되기 위해서 구원은 김석범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과 더 나아가 ‘학살’의 기억이 존재하는 세계의 구원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까마귀의 죽음』에는 일제강점기의 문제, 관현에 협조했던 도민들이나 학살의 주범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서북청년단 등의 입장, 4·3사건의 이데올로기 문제 등이 등장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이데올로기 문제는 작가가 작품의 집필 당시 조직에서 활동을 한 것 등 여러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끊어진 기억과 역사가 후세에 이어지게 하려면 조금은 결끄러운 이야기가 될지라도 작품 안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기억이 상생을 위한 기억이어야 한다고 할 때, 가해자의 최소한 변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라 볼 수 있는 관현의 사람들 역시 시대 상황에 희생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그들의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기억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기억’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참된 ‘기억’의 모습일 것이다.

주제어 : 김석범, 까마귀의 죽음, 역사, 기억, 문학

26) 「결국 『까마귀의 죽음』 등은 내 니힐리즘 극복의 한 방법이기도 했지. 뭐 공산당에 들어가 있었지만, 관념의 문제는 다르니까 공산주의로 정리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까마귀의 죽음』을 씀으로써 니힐리즘을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지. 그러니까 만약 『까마귀의 죽음』을 쓸 수 없었다면 나는 살아있을지 알 수 없어. 그건 작품을 인정받는다는 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가 말이야, 그걸 씀으로써 생을 한 발 앞으로 내딛을 수 있었지.」(김석범·김시종, /이경원·오정은 역, 앞의 책, 2007, 79쪽).



##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②-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도서출판 각, 2006.
- 金石範, 『民族・ことば・文學』 創樹社, 1976.
- \_\_\_\_\_, 『鴉の死』 『金石範作品集』 平凡社, 2005.
- \_\_\_\_\_,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2005.
- 김석범/김시중, 이경원·오정은 역,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석범/김종민(기자) 인터뷰, 『4·3과 역사』 제29호, 제주4·3연구소, 1997(초출 : 『제민일보』 1997년 10월 28일자).
-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삼인, 2001.
- 노종상, 「4·3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와 심적거리(psychic distance)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7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0.
- 立松和平, 『光の雨』, 新潮社, 1998.
- 무라카미 하루키, 『언더그라운드』, 문학동네, 2010.
- 유숙자, 『재일한국인문학연구』, 월인, 2000.
- 이영권, 『역사기행 16-제주4·3을 묻습니다』, 신서원, 2007.
- 정대성, 「작가 김석범의 인생역정, 작품세계, 사상과 행동-서론적인 소묘로서-」, 『한일민족문제연구』 Vol.9, 2005.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 2. 디지털 문헌

「한라단」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gc/contents/contents.jsp?tid=602538>

〈ABSTRACT〉

Consideration of 「Death of Crow」 by Kim SeokBum  
: Literature as Recreation of memory

Lee, KyungAh

Kim, Seok Bum from Jeju island is the <Korean Japanese writer> who created almost all pieces with one theme, Jeju 4-3 incident. However, Kim, Seok Bum is not the writer who directly experienced Jeju 4-3 incident. He, for example, uses the stories of other speakers like the woman who cut out the breast and the cousin who escaped to Japan to continuously re-establish literary pieces for the imagery details. Therefore, this essay based on these points, it is to consider how the historic and patriotic views of writer is applied to the created literature through passed memory of the 3rd party, not with direct experience.

There is 'memory' in the origin of [Death of crow]. They are the memories of massacred and people who witnessed the incident. These are the one that must not be remembered, forced to be forgotten. Maybe Kim, Seok Bum wanted to include memory and history that is about to be blocked. It was only possible via the literature and the memory in that literature is not dividing the assailant and victim but can be the good memory for epigyny, to direct to the future.

Key words : Kim Seok Bum, Death of Crow, History, Memory, Literature.

논문투고일 : 2012년 1월 10일 / 논문수정일 : 2012년 1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월 25일